



순창군, 겨울나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가저

순창군이 지난 16일 겨울철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겨울나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풍산면 소재 감식초 공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정생 산림조합장, 조광희 부군수, 군 산림부서 및 산림조합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순창군 산림조합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를 위해 조합은 사업장에서 산물 수집과 땀감용 조제 작업을 진행해 목재를 준비했다.

지원 대상지는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3가구를 선정했다. 산림조합은 선정된 가구에 1.5톤씩 총 약 50톤의 땀감을 전달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각 가정까지 직접 운반해 추운 겨울철 온정을 나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신덕면 사기마을 이진수 씨, 20년째 성금 기부

신덕면 사기마을에 사는 이진수 씨가 지난 16일 신덕면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씨는 아름다운 선행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어려운 아동과 이웃을 위해 성금과 신발 등 물품을 기부하며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씨는 사기마을에서 배추·무 농사를 지으며 성실한 농부의 삶을 살고 있고,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떠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성금은 전라북도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해 신덕면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이진수 씨는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 성덕면 소석마을 고락일 씨, 백미 100포 기탁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소석마을에 거주하는 고락일 씨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100kg, 10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미 10kg 100포를 기부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고 씨는 "지역에서 살아오며 받은 따뜻한 도움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응급의료 협력으로 두 생명 살려

덕진소방서·119구급대·송천지구대 등... 지역 넘어선 유기적 공조 성과 '빛나'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을 넘어 작동한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두 생명을 살린 사례가 전해지며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보호자의 감사 글과, 광주에서 전북까지 긴급 이송된 소아 환자 치료 사례를 통해 응급의료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커뮤니티에 게시된 감사 글에는 전주 덕진소방서 119구급대와 송천지구대, 전북대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공조로 세 차례 심정지를 극복한 환자의 사연이 담겼다. 환자는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구급대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되찾았다.

이후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는 경찰의 교통 지원으로 구급차가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송 중과 병원 도착 후 발생한 두 차례의 심정지 역시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심장내과 의료진의 빠른 대응으로 고비를 넘겼다. 환자는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상태다.

보호자는 "세 차례 심정지를 겪으며 사흘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던 어머니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했다"며 "지금은 좋아하는 꽃을 가꾸며 함께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큰 공감을 얻으며 응급의료 현장의 헌신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 원인 불명의 급성 경련으로 쓰러진 소아 환자가 전북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생명



을 구한 사례도 전해졌다. 당시 아이는 지역 내 치료가 어려운 위중한 상태로 판단돼, 구급대의 결정으로 전북까지 이송됐다.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도착 직후 신속한 처치로 아이의 호흡과 의식을 안정시켰고, 현재 환이는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례 모두 구급대의 현장 판단과 이송, 경찰의 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의 치료 역량이 유기적 연결되며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응급의료는 병원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례는 우리 병원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최종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119와 경찰, 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위급한 순간에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순창소방서, OPEN-소방서 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순창소방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OPEN-소방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OPEN-소방서는 소방서를 개방해 소방업무 환경과 역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령과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는 소방서 견학을 통해 화재·구조·구급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방차량 탑승 체험을 통해 출동 장비와 차량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CPR) 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완강기 사용법 실습이 진행되며, 방화복 착용 체험과 소방호스를 활용한 방수 체험을 통해 화재 대응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순창소방서는 OPEN-소방서 운영을 통해 견학을 넘어 체험과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 금중, 남원 인월면에 두유 60박스 전달

지리산 금중, 인월면에 두유 60박스 전달남원시 인월면 관계자는 관내 지리산 금중(대표, 이미숙, 인월면 생활개선회장)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센터에 두유 60박스(환가액 130만원)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미숙 회장은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영양 프레스 사랑의 두유'를 해마다 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에도 솔선수범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종선 인월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두유 지원으로 도움 주신 이미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틈새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명의기부자, 이웃 위해 컵라면 6박스 기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2월 11일,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컵라면 6박스를 기부해 왔다고 밝히며, 전달받은 물품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기부했다.

임은용 복지관장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용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김승현 소방서장은 "소방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장애인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 '눈길'

무주군이 지역 내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사업'이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통합돌봄지원사업은 지역 내 등록장애인 가운데 거주시설 입소자,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13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무주군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찾아가는 재활서비스(건강관리, 심리재활 등) 제공, △자립생활 교육 및 일상생활 기술 학습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건강·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근력 강화와 우울감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생활교육 프로그램 역시 참여자의 사회적 경험 확대와 자립역량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초인등 부착 등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단절돼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4명을 새롭게 발굴·지원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한 상담, 주거, 건강, 생활교육, 자립활동 등 더욱더 촘촘한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지원사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통합돌봄지원사업 외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등 주거지원, 공공후견인 연계 등 장애인 권익지원,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보건 의료,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단절돼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4명을 새롭게 발굴·지원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한 상담, 주거, 건강, 생활교육, 자립활동 등 더욱더 촘촘한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지원사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통합돌봄지원사업 외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등 주거지원, 공공후견인 연계 등 장애인 권익지원,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보건 의료,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6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